



즉시 배포용: 2018 년 3 월 22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오피오이드 중독 확산에 대한 대처 활동을 강화한다고 발표

**현재 중요한 데이터를 25 개 주 및 워싱턴 D.C.와 공유하고 있는 뉴욕주의 처방전
모니터링 프로그램(Prescription Monitoring Program, PMP)의 확대**

**날록손을 휴대하면서 투여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마약 단속국(Bureau of Narcotic
Enforcement, BNE) 수사관들**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ASAS) 해독 요법 인증 없이 해독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병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 미국 전 지역에서 뉴욕의 처방전 모니터링 프로그램(Prescription Monitoring Program, PMP)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2) 날록손을 휴대하면서 투여할 수 있도록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NYSDOH)의 마약 단속국(Bureau of Narcotic Enforcement, BNE) 수사관들을 훈련시키며, (3)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New York State 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NYS OASAS)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병원이 해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등의 오피오이드 중독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극적인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뉴욕 주민들이 매일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부는 오피오이드 중독 확산이 과거의 일이 될 때까지 결코 쉬지 않을 것입니다. 적절한 치료를 위해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러한 추가 조치로 더 많은 자원과 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뉴욕은 생명을 구하고, 약물 과다 복용을 예방하며,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구현하면서 미국을 계속 이끌어 갈 것입니다.”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태스크포스(Heroin and Opioid Task Force)의 공동 의장인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독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뉴욕주 전 지역의 셀 수 없이 많은 가족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이 중독 확산은 너무나 많은 젊은 생명들을

앞아가고 있습니다. 주지사님과 저는 이 위기를 수수방관하면서 계속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중독으로 고생하는 중독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는 우리의 활동으로 미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대응으로, 뉴욕은 이 위기에 대처하고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중독자를 돕겠다는 우리의 변함없는 공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처방전 모니터링 프로그램\(PMP\)](#)에 다른 주들을 참여시키려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 프로그램은 이제 25 개 주 및 워싱턴 D.C.와 상호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뉴욕주의 프로그램이 환자의 처방전과 관련하여 다른주의 처방전 모니터링 프로그램(PMP)과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또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절반에 해당하는 주들의 연결로 이제 환자 약 1억 5,000 만 명의 규제 약물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의 의료 서비스 기관들은 이제 환자의 규제 약물 기록 전체를 알아보기 위해 처방전 모니터링 프로그램(PMP)을 검색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등의 3 개주 지역(Tri-State Area)과 주 경계선을 넘은 다른 지역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보다 명확한 규제 약물 기록을 통해, 의료 서비스 기관들은 오피오이드 중독 확산에 대처하는 중요한 수단인 의료 기관을 전전하는 “닥터 쇼핑(doctor shopping)”을 더욱 손쉽게 찾아내서 방지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아이-스톱 프로그램(I-STOP Program) 법안이 규제 약물을 처방하기 전에 처방전 모니터링 프로그램(PMP)을 확인하도록 의사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한 이후, 뉴욕에서 “닥터 쇼핑(doctor shopping)” 건수가 98 퍼센트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뉴욕 처방전 모니터링 프로그램(PMP)의 상호 운용성을 처음에는 주 경계가 접한 주들로 그리고 나서는 궁극적으로 노스이스트의 나머지 주들, 동부 해안 및 기타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체계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보건부는 매년 다른 주들과의 모든 계약을 검토한 후, 해당 법령 및 액세스 규칙, 데이터 공유 및 보안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들을 재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피오이드 중독 확산 대처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마약 단속국(Bureau of Narcotic Enforcement, BNE)과 함께 수사관들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을 해독할 수 있는 날록손을 휴대하면서 투여할 수 있도록 보건부의 에이즈 연구소(AIDS Institute)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마약 단속국(BNE) 수사관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의심스러운 마약 사건들을 수사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 보건 전문가, 기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뉴욕주 규제 약물법(New York State Controlled Substances Act) 및 규정을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ASAS)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현재 제공하고 있는 해독 서비스를 확대하는 시간 제한 면제권을 병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은 5 개 병상이나 전체 입원 일수의 10 퍼센트를 기준점으로 삼아 그 이상은 해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면제권은 병원이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ASAS)과 보건부(DOH) 양쪽에 해독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를 통보하는 한,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ASAS)의 해독 요법 인증 없이도 해독에 대한 규제 한도는 초과하지만 자격을 갖춘 환자의 경우 입원과 치료를 허용합니다. 이 면제권은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ASAS)과 보건부(DOH)가 면제권의 유지 필요성을 재평가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이 규제 면제 완화에 더하여, 병원은 응급실 의사들이 또한 약물 지원 치료를 통해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연방 정부의 유연성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연방법과 규칙에 따라 의사는 중독 치료를 실행하는 동안, 비상시에는 하루에 한 번 최대 72 시간까지 메타돈 또는 부프레노르핀 등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 환자에게 부프레노르핀을 투여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 정부로부터 얻은 개별 의사들은,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ASAS)의 해독 요법 인증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저희는 오피오이드 확산에 대처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대담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계속 취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뉴욕 주민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중독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조치들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중독 확산의 물결을 바꾸는 지속적인 활동이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OASAS)의 **Arlene González-Sánch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오피오이드 위기는 우리 나라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뉴욕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중독에 대처하기 위한 대담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많은 뉴욕 주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고,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으로 향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상원 건강위원회(Senate Health Committee)의 **Kemp Hannon**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헤로인과 오피오이드 남용을 막기 위한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저는 생명을 구하는 날록손의 가용성을 높이고 더불어 회복과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넓혀주는 아이-스톱 프로그램(I-STOP Program)을 출범시키는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지사님과 협력하여 일했습니다. 이 중독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조 활동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원 건강위원회(Assembly Health Committee)의 **Richard N. Gottfried**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은 오피오이드 중독 확산 대처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병원의

해독 요법 서비스를 쉽게 받도록 하여 인명을 구하고 뉴욕 주민이 적절한 약물 지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Linda Rosenthal 하원 알코올 및 약물 남용 대책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Alcoholism and Drug Abuse)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에는 약물 사용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회복에 이르는 다양하고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오피오이드가 처방된 장소와 일자를 추적하여 구명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이 활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명 치료에 대한 지원을 우리 주가 받을 때까지 편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전국적으로 오피오이드 해독제를 확대하면서 투여할 수 있는 현장의 누군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저의 ‘모든 곳에서 날록손을(Naloxone Everywhere)’ 법안을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